

총선 D-16

민주 광주·전남 공천 결과와 전망

전문성 고려 탈락 인사 '비례' 발탁 가능성

비례 13~15번까지 안정권... 영남권 우선 배려 현역 물갈이 여론조사 잠음 등 개혁 공천 불발

민주당이 23일 4·9 총선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공천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은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광주·전남지역 통합민주당 공천 결과를 조명해본다.

◇기대 이하 공천 결과=호남 현역 의원 30% 물갈이와 부정·비리 전력자의 공천 배제 원칙을 내세우며 기세 좋게 출범했던 공천심사위는 공천심사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운동사 미신이 됐다.

우선 의정활동을 계량화,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30%를 탈락시킨 것도 적절치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공천 탈락 대상자로 꼽혀왔던 광주·전남지역 일부 현역의원들이 공천장을 받은 반면 일부 현역의원들은 의정활동 계량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천에서 탈락했다.

또 현역의원에 유리한 국민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역량이 있는 정치 신인

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는 평가다.

◇무소속 돌풍 부나=통합민주당의 어설론 공천은 무소속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지역 정치권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경쟁력에서도 무소속 후보에 처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 전남의 무안·신안과 목포시의 경우,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무소속 돌풍의 핵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 남구와 광산구갑, 전남의 해남·진도·완도와 영암·장흥·강진, 고흥·보성 지역 등도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의 상당한 격차가 예고되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은=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는 최대 16~17번, 최소 13~15번까지가 당선 안정권이다. 일단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번(여성)에 금융전문가인 이성남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내정한 상태며 2번에는 송민준 전 외교교통상부 장관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는 당선 안정권의 2배수

인 40명 안팎의 최종 후보 압축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선정 기준 등을 놓고 손학규, 박상천 대표와 박재승 위원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과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영남권 인사들이 우선 비례대표 상위 순번 고려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윤석환 전 교육부총리와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 민주계 쪽으로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신나균 전 의원, 김경천 전 의원, 김충조 최고위원, 황태연 동국대 교수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통합민주당 계열로는 박선숙 전 환경부 차관,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근욱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성 등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 순번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유종필 대변인, 고재득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손학규·박상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지도부가 23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공천자 전진대회 및 민생제일주의 비전 국민과의 서약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남스

25~26일 후보등록·27일부터 선거운동

한 168석·민주 100석·자유선진당 50석 확보 주력

총선 일정·각당 의석 목표

제18대 총선이 25~26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지역구 출마자는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각각 등록하고 27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는 여야 4당(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친박연대' 등 군소 정당 공천자, 무소속 출마자를 합쳐 모두 1천300여명이 출마, 경쟁률이 5대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에서도 20개 선거구에 100여명이 출마한 상태다.

소선거구가 채택된 이후 역대 선거경쟁률은 17대 총선 4.8대 1, 16대 총선 4.6대 1, 15대 총선 5.5대 1 등이었다.

지역구 245석과 비례대표 54석 등 총 299석이 걸려있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 불과 넉달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국정안정론'과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거여견제론'이 정면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 각 당은 금주부터 중앙 선거대책위원회를 일제히 출범시키며 총선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3일 중앙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천자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한나라당은 24일 중앙 선대위를 발족시키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해 총선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중앙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 개헌 지지선인 100석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실용노

18대 총선 일정

2008년 3월 21~25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인명부 작성
3월 25~26일	후보자등록 신청 (오전 9시~오후 5시)
3월 31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4월 2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 3~4일	부재자투표소 투표
4월 4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개표소 공개
4월 9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선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과반인 168석의 총선목표 의석을 제시한 상태다. 자유선진당은 50석을 목표로 의석으로 제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20석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친박연대'는 영남과 수도권 일부에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20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총선 후보자들은 29일까지 선전벽보와 공보를 제작,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31일까지 각 지역에 선전벽보를 붙이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이어 4월 2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4일까지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정보자료 등이 전달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지원·김홍업·강운태·송병태·이무영씨

무소속 돌풍 일으킬까

통합민주당의 전통 지지기반인 호남권에서 유력한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4·9총선 판세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호남권 31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 원칙 등에 걸려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무소속 돌풍이 예상되는 지역구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고형 이상 비리전력자의 공천배제' 기준에 걸려 탈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미 목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호남 현역 30% 배제에 걸려 탈락한 이상열 의원이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무소속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정영식 전 행정부차관과 박지원-이상열 세 후보 간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김홍업 의원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지역구인 무안·신안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일 민주당 공천을 받은 황호순 전 당 사무부총장과 일전을 벌이게 됐다. 무안·신안 지역구의 경우 두 후보 외에 이윤석 전 전남도회의장이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보여 3파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두 지역구 모두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지만 현실적인 난관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목포의 경우 박지원-이상열 두 후보가 표를 나눠가질 경우 당 공조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영식 후보의 어부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무안·신안에서 무안대 신인의 지역대결 구도가 펼쳐질 경우 김홍업 후보의 승리를 확실하게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광주 남구에서는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이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선언, 민주당 재공천을 받은 지병문 의원의 일찌감치 출마가 됐다. 남구에서는 강 전 장관이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나 당의 지원을 받은 지 의원의 세도 만만치 않아 호남지역 최고의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동철 의원이 재공천을 받은 광주 광산구에서는 민선 2, 3기 광산구청장을 지낸 송병태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 거센 도전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바람이 송 후보의 탄탄한 지역 기반을 뒤집을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완산갑 공천에서 탈락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도 지난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천탈락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 정영달 의원과 대결을 펼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성·30~40대 표심 향배 가른다

전국 선거인수 3,780만명중 여성 51%·30~40대 45%

행정안전부는 4월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총선거인수가 각각 103만4천680명(전국의 2.7%), 149만7천644명(4.0%)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의 여성 선거인수는 53만2천978명으로 남성(50만1천702명)보다 3만1천276명 많았으며, 전남도 남성(73만5천900명)보다 여성 선거인수가 2만5874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전국 총 선거인수 3천780만6천93명 가운데 30대와 40대의 비율이 45.3%를 차지, 선거 결과에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이 49.2%인 1천861만6천424명, 여성이 50.8%인 1천918만9천669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9세가 1.6%(62만3천77명), 20대 19.2%(726만121명), 30대 22.7%(857만8천603명), 40대 22.6%(853만841명), 50대 15.6%(589만7천529명), 60대 이상은 18.3%(691만5천922명)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가 37번길 24
대표전화 (062) 234-3222

신입 주택 4실
대우건설의 신도시 신도시(1) 1차 1단지 4실
329,000
+부가세 37만 9,000원 / 4월 2일

신입 주택 4실
신한건설의 신도시 신도시(1) 1차 1단지 4실
329,000
+부가세 37만 9,000원

신입 주택 4실
신한건설의 신도시 신도시(1) 1차 1단지 4실
369,000
+부가세 42만 9,000원

신입 주택 4실
신한건설의 신도시 신도시(1) 1차 1단지 4실
399,000
+부가세 45만 9,000원

신입 주택 4실
신한건설의 신도시 신도시(1) 1차 1단지 4실
529,000
+부가세 60만 9,000원

신입 주택 4실
신한건설의 신도시 신도시(1) 1차 1단지 4실
569,000
+부가세 64만 9,000원

투어트레블 기획 특가!!

대한항공 **문화관광** **광주광역시** **호텔**

가미대리
가미대리 4실 5일
529,000 +부가세 60만 9,000원

가미대리
가미대리 4실 4일
419,000 +부가세 48만 9,000원

집중모객
삼재 / 향주 / 순주 4실
349,000 +부가세 40만 9,000원